

한림성심대 바리스타제과제빵과, 한샘고 대상 진로적성교육

정광섭 기자 | 승인 2024.07.11 21:08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일환으로 프로그램 진행



11일 오전 한림성심대 제과제빵실습실과 바리스타실습실에서 진행된 진로적성교육에 참가한 한샘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춘천=참뉴스】 정광섭 기자 = 한림성심대학교(총장 문영식) 바리스타제과제빵과는 11일 오전 교내 제과제빵실습실과 바리스타실습실에서 한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적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1유형) 지역사회공헌 자율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재미있게 즐기는 커피&베이커리 체험과 진로적성 탐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식음료문화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커피와 베이커리에 대해서 체험하고 함께 만들어 먹어보면서 알아가는 재미있는 식음료 세계 이해’를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11일 오전 한림성심대 제과제빵실습실과 바리스타실습실에서 진행된 진로적성교육에 참가한 한샘고등학교 학생들이 제과제빵을 만들고 있다.

이날 교육은 △제과와 제빵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빵을 만들어 보는 베이커리 세계의 이해와 체험 △커피와 바리스타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커피를 만들어 보는 커피 세계의 이해와 체험 △자신이 직접 만든 빵과 커피를 포장하여 가는 교육내용 등으로 진행됐다.

문정빈(한샘고 3년) 학생은 “대학에 와서 처음 체험해보는 교육프로그램이라 처음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지만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기분 좋았다”면서 “기회가 되면 바리스타제과제빵과에 꼭 입학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과제빵 과정을 담당한 유선옥 교수는 “천진난만한 학생들과 만나 빵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신선했고 좋았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세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다”면서 “저에게도 좋은 추억의 한 장면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한림성심대 제과제빵실습실과 바리스타실습실에서 진행된 진로적성교육에 참가한 한샘고등학교 학생들이 커피 로스팅을 하고 있다.



11일 오전 한림성심대 제과제빵실습실과 바리스타실습실에서 진행된 진로적성교육에 참가한 한샘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가지고 드립 백을 만들고 있다.

한편 바리스타제과제빵과는 2025학년도 입시로 45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습 위주의 현장직무교육,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예비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학과다.

교육 분야는 3가지 트랙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 트랙은 커피와 티 분야로 커피와 차에 대해, 두 번째 트랙은 제과제빵 분야로 베이커리에 대해, 세 번째 트랙은 양조 분야로 수제맥주, 하우스와인, 전통주, 각테일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2025학년도 수시1차 모집기간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이고, 합격자 발표는 2024년 10월 29일에 한다. 수시2차 모집기간은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고, 합격자 발표는 2024년 12월 10일이다.

정시모집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이며, 합격자 발표는 2025년 2월 4일이다. 등록기간은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이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scoop25@chamnews.net